

한국건축가에게 묻는 AIA의 질문

AIA's Questions Towards Korean Architects

원정수 / 인하대학교 건축공학과 명예교수

by Won Jeong-Soo

지난 5월 3일부터 6일까지 필라델피아에서 개최된 2000년도 미국 AIA(The 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ure)총회에서 명예원로회원(Honorary Fellow)에게 메달수여식이 거행되고, 마지막 날에는 AIA회원의 세미나 토론장에서 신임 명예회원으로 선정된 심사평과 함께 대표작품들을 슬라이드 스크린에 비추어 소개하고 이어서 차례로 기조강연을 발표토록 했다.

미국 이외의 세계 여러 곳에서 선정된 명예회원에게는 AIA에서 제시한 질문에 답하는 내용으로 기조강연을 하게 되었는데, 질문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축의 구상(image)과 이를 전개하는 과정이 미국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둘째, 국제관계에서 한국의 건축실무분야의 미래상은 어떠한가?

셋째, 미국 건축가(또는 미국 건축계)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넷째, 향후 20년 동안 건축이 인간을 위할 수 있는 예상은?

이상의 네 가지 질문은 미국 건축가들이 한국 건축가에게 물어온 질문이기도 하므로 건축사회원 여러분도 답변을 생각해 볼만한 것이다.

첫째 질문에서 미국 건축가들이 한국적 현상을 이해하며 공감할 수 있는 답변을 다음과 같이 생각하였다. 한국건축가는 급변하는 사회적, 시대적 상황이 너무도 극심하여 여기에 상응하는 사회적 역할도 마치 빈 모자 속에서 비둘기를 날리고, 토끼도 만들어내고 깜짝 놀라게 하는 물건을 만들어내는 미술사처럼 맨손으로 단숨에 빌딩과 도시를 그려내고 만들어내는 건축미술사라고 생각해 하는 질문이었다.

둘째 질문에서는 최근에 한국 건축계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건축교육의 국제 기준에 따르는 교육인증제도에 관한 문제가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오른다. 세계 2차 대전 종전과 더불어 미국에서는 20세기 현대건축의 영향으로 도시가 폭발적으로 발전하고 세계건축문화의 중심 독무대가 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미국도시의 모습은 조용히 쉬는 듯이 변화가 거의 정지되고, 미국 건축가는 한국을 비롯한 세계 도처에 세울 설계에 전념하고 있는 실정에서 나을법한 그들의 관심사라고 느꼈다.

셋째 질문은 정말 하고싶은 말이 많은 듯 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문제라고 보았다. 평소에 미국건축 정보에 많이 젖어있는 듯하여 미국건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듯하고, 미국 건축가와 자주 협동설계를 하는 기회에서도 그들을 잘 알고있는 듯한 느낌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정체를 정확히 말할 수 있을까? 의문을 갖게한다. 미국 건축가들이 한국 건축주에게 초청되어 한국의 기존환경을 뒤집어엎는 설계역량을 과시하기도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한국에서 설계를 경험했던 미국 건축가는 그들의 설계내용이 한국의 일반적 의사에 따라 변질되어지는 사례 또는 여러 가지 미국과 다른 정서로 인하여 계획안과 건축실체가 판이하게 달라지는 것이 불감되는 현실에서 불만과 실망이 크다는 것도 토로하고 있다. 하여튼, 우리의 건강과 환경에 알맞은 김치 토속음식의 한국영토에는 햄버거와 콜라가 잠식한 경우처럼 건축설계의 분야가 국제교류가 활발해지는 상황에서 할 말이 많아지고 있는 관심사이다.

마지막 넷째 질문은 필자 자신과 젊은 세대인 새싹 건축가와 함께 풀어야 할 문제라고 보았다. 정치적 국제정세를 주도한 미국은 20세기 현대건축문화 조류에 있어서도 세계중심무대이었으나 21세기를 앞두고 소련체제 붕괴이후 국제정세 또한 다극화 양상으로 변화가 일어나면서 미국 주도의 건축문화조류 또한 지역주의적 다극화현상이 일어나고 선진국 편중의 산업주도 판도가 개발도상국가로 확대되면서 첨단기술정보산업의 지구촌공유 평준화로 발전되면서 인간의식과 인간계층구조가 정치적 이념 중심에서 지역주의적 세대간의 의식차로 일어나는 새로운 사회구조로 변천되는 과정에서 건축계에도 이에 따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건축설계해석방법 및 기법에도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지구자연환경파괴로 인한 인류생존권을 수호해야하는 건축가의 사명이 일어나고, 이를 해결하는 건축가의 창작의지와 설계제작의 방법 또한 독자적 전문기량에서 다원화된 관련요소를 통합 창출해야하는 새로운 건축전문인으로 변신되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조류의 급류에 휘말리고 있다. 19세기까지 전통적, 예술적 건축가 신분에서 20세기 산업시대에 성장된 현대 기성건축가와 사이버 가상공간에서 마음껏 활보하는데 익숙해지며 상상력에 괴력이 풍만해지고 있는 신세대 미래의 주인공과 함께 21세기 미래를 대비해야할 시점에서 앞으로 20년 동안 해야할 건축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상과 같이 미국건축가들은 우리에게 네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가까이 함께 있는 셈이다.

기조강연의 기회는 3분이란 짧은 시간이었으며 부득이 요약 농축시킨 요지를 발표하였는데 여기에 원문 일부를 그대로 기재하므로써 다음 진출할 회원에게 알찬 기대를 한다.

<전략>.....

Korean society is very unique in nature.

It is like a pot that holds together the remains of agricultural society together with industrial society and the information society of the future.

And so the past and the future co-exist in most of my design works.

My approach to design starts with the question of how to harmonize traditional values and every-changing global trends.

I call my design philosophy the harmony of alpha and omega because it combines what we used to be with we will be.

This is basically what Korean architecture is all about when it comes to design. This has also been my main subject in my classroom for the last 35 years.

.....<후략>